

2010 전국순회강연

〈KBS 아침마당, 낭독의 발견〉출연! 베스트셀러 〈날마다 웃는 집〉 저자!

법륜스님의 행복강좌

6월 25일 (금) 오전 11시

장소 김해문화원 (시외터미널 맞은편 보건소 옆)

문의 정토회 김해법회 010-4541-3605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법륜스님의 영상강좌 들을 수 있는 곳

장소 ① : 흥동 한빛타운3차 101동 301호 ☎010-5669-6042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정토불교대학 영상강좌)

장소 ② : 흥동 한빛타운3차 101동 802호 ☎010-6305-4560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③ : 삼계동 푸르지오2차 옆 전통찻집<천복> ☎055)312-8088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장소 ④ : 내동 185-11 / 내동중학교 후문 ☎010-9141-4956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⑤ : 진영 코아루 아파트 402동 ☎011-856-1944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KBS아침마당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강연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을 감동시켰고,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날마다 웃는 집〉에서 가족은 행복을 담는 그릇임을 일깨워 주신 법륜스님의 명쾌한 강의는 살아있음의 경이로움, 인생을 사는 기쁨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강사소개 | 법륜스님



수행공동체 정토회의 지도법사로서 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생태환경운동·기아질병문맹퇴치운동·평화인권통일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1998년 교보환경문화상 사회교육분야 본상, 2000년 만해상 포교상
2002년 막사이사이상(평화와 국제이해부문), 2007년 민족화해상 수상

▶저서 : 〈답답하면 물어라〉,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금강경이야기〉, 〈반야심경이야기〉, 〈행복한 출근길〉, 〈날마다 웃는 집〉 외 다수



가족 안에서 행복해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들은 생활태도가 엉망이고, 공부 안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을 반복하며 부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학교 성적문제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심정만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 아이에게 엄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가 말썽을 피우는 가장 큰 원인은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선 남편에게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잘못했든 잘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시비를 따지고 분별심을 내며 다투는 것들이 고스란히 아이의 마음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충을 쓰면 엄마가 대신 맞고, 칼을 휘두르면 엄마가 대신 막듯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나쁘더라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즉 어머니는 어떤 경우라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돈을 못 벌어도 주어도 부인이 아무 분별심 없이 편안하면 아이가 자라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남편이 없다는 것에 한을 갖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한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 이혼한 집에서 자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엄마가 그로 인해서 사는 걸 힘들어하고 그 영향을 아이가 고스란히 받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자는 인간이지만 엄마는 신입니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아이의 모든 것을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이나 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것 사주며 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 법륜스님 말씀 중에서 -

|| 법륜스님 법문 추천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 가서 인생을 물을 데가 없다. 그러다보니, 더욱 편협해만 간다. 법륜스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다른 사람에겐 낮간지럽고 민망하고 쑥스러워 물을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스님에게 물어간다. 인생에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감사한 일이다.
- 이금림 (드라마 작가)

나는 기독교신자다. 내가 법륜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불교적인 차원이 아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지를.....
- 배종옥 (배우)

진리가 우주에 가득해도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부처의 말씀은 만 중생을 깨우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말씀이다. 것처럼 2천년 뒤 나, 그리고 오직 당신을 위한 특별한 법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 조현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땅 속의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우리들의 참 스승 법륜 스님은 모든 걸 애절하게 바쳐 우리시대의 진정한 마중물이 되어 우리에게 담대한 희망, 뜨거운 인간애를 심어주었다. 부처님의 향기처럼...
- 김홍신 (소설가, 건국대석좌교수)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의문을 법륜스님과의 문답으로 풀어보세요!

**BTN 불교TV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방송안내**

매주 월~금 오전 9:30 / 저녁 8:30 / 새벽 2:00
매주 일요일 낮 12:10 (일주일분 모아서 방송)